

“찰흙처럼 빛는 게 인생이죠”

August 17, 2016 | 이향휘 기자

“찰흙처럼 빛는 게 인생이죠”



‘보따리 작가’ 김수자
16년만에 국내서 전시
현대자동차 후원으로
‘마음의 기하학’展 열려

세계 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보따리 작가’ 김수자(59)는 늘 검은색 옷을 트레이드마크처럼 입는다. 까만 긴 머리에 검은 눈동자의 마력을 뿜어내는 그이기에 블랙 사람은 더욱 유별나게 다가온다.

2013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작가로 참여했을 때도 전시장 한쪽에 암실을 설치해 1분간 까마득한 어둠을 경험하게 하는 깜짝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본질에 닿는 검은색으로 묵직하게 소통하는 그가 16년 만에 국내 미술계로 돌아왔다. 2000년 로댕갤러리 개인전 이후 첫 대규모 기획전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연다. 뜻밖에도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보따리가 아니라 찰흙이다. 그것도 작가가 빛은 작품이 아니라 관객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양방향 작품이다. 작품 제목이자 전시 제목인 ‘마음의 기하학’은 찰흙을 빚고 굴리며 마음을 들여다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커다란 타원형 테이블이 눈에 띈다. 무려 19m짜리 목재 테이블이다. 테이블 주위에는 의자가 놓여 있다. 관객들이 저마다 고른 찰흙을 가지고 테이블 앞에 앉아 찰흙을 동그랗게 공처럼 빚는 뒤 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 놓는다.

관객들이 올려 놓은 찰흙 덩어리들이 대형 테이블을 뺨곡하게 채울 정도다. 찰흙을 빚는 동안 테이블 아래 설치된 16개의 스피커에선 32가지의 차분한 소리가 흘러나온다. 공들이 굴러가는 소리 등을 담은 ‘구의 궤적’이라는 작품이다. “흙을 만지는 손의 움직임은 보따리나 이불보를 써는 행위와 비슷하죠. 찰흙을 감싸고 굴리는 행위를 통해 관객의 마음도 동글동글

해지고 비워지게 된답니다.”

어린 시절 가지고 놀았던 찰흙을 통해 동심을 되찾고 마음을 비우게 되니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값진 미술관 체험인 셈이다. 이번 전시는 현대자동차가 국내 미술계를 대표하는 중진 작가를 후원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김수자는 이불과 안규철에 이어 세 번째 작가로 선정돼 대규모 전시를 열게 됐다. ‘마음의 기하학’ 작품 외에 신작 9점 중 눈에 띄는 작품은 20여분짜리 영상 ‘실의 궤적’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실을 직조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미국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지역을 촬영한 이 영상에선 인디언들이 어떻게 실을 짜 천으로 만들고, 이것이 대도시로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 경로를 인류학적으로 탐색한다.

지난해 메스 폰피두센터와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 개인전을 연 김수자는 실과 바늘, 보따리 등 여성적이고 전통적인 소재를 화두 삼아 작업했다. 1997년 보따리 수백 개를 트럭에 싣고 전국을 달리는 퍼포먼스를 해 ‘보따리 작가’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전 세계 대도시 거리에서 가만히 몇 시간 동안 서 있는 퍼포먼스를 벌여 ‘비늘 여인’이라는 수식어도 얻었다. “보따리는 영원한 제 화두지요. 마치 보따리를 중앙에 놓고 주위를 힐끔힐끔 바라보는 식이랄까요.”

작가가 19년 동안 직접 사용한 요가 매트를 펼쳐 매달아 놓은 ‘몸의 기하학’ 작품에 대해선 “우리가 하는 움직임에는 기하학적인 포인트가 많다. 우리 몸이 가진 중력이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매트 위에 흔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내년 2월 5일까지. (02)3701-9500 이향휘 기자